

한의 외래서비스 이용자의 동일 증상에 대한 타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다빈도 질환 분석: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전천후¹⁾ · 김지현²⁾ · 조용규²⁾ · 최대범³⁾ · 윤상훈⁴⁾ · 차지원⁴⁾ · 장보형⁵⁾ · 신용철⁶⁾ · 고성규⁶⁾*

¹⁾ 경희대학교 한의학안전성유효성평가연구소 연구교수, ²⁾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대학원생

³⁾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대학원생, ⁴⁾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방응용의학과 대학원생

⁵⁾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⁶⁾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The analysis on the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for the same symptoms and the frequent diseases of outpatient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 Based on the 2017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Survey

Chunhoo Cheon¹⁾, Jihyun Kim²⁾, Yongkyu Cho²⁾, Daepum Choi³⁾, Sanghoon Yoon⁴⁾
Jiewon Cha⁴⁾, Bo-hyoung Jang⁵⁾, Yong-Cheol Shin⁶⁾ & Seong-Gyu Ko⁶⁾*

¹⁾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afety, Efficacy and Effectiveness for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²⁾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³⁾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⁴⁾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pplied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⁵⁾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⁶⁾ 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of outpatient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

Methods :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2017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Survey was conducted. Demographic variables and frequent dise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using other medical institutions. The proportions of experience of using other medical institutions of patients with frequent diseases of Korean medical outpatient were analyzed.

Results : Fifty-three percent of outpatient had experiencing using other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same symptoms. The frequent diseases of the two groups were similar. The proportion of single use of Korean medicine for injury of lumbar and pelvic, rhinitis, and menstrual disorders were relatively high.

• 접수 : 2019년 11월 26일 • 수정접수 : 2019년 12월 4일 • 채택 : 2019년 12월 16일

* 교신저자 : 고성규,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2-961-0329, 전자우편 : epiko@kh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I18C2382).

Conclusions : There was no notable difference in the frequent diseases according to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Further studies on this topic are needed.

Key words :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Survey,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herbal medicine, Frequent disease

I. 서론

한의학은 이원적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의료이용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양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높은 편으로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73%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이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다.¹⁾ 2018년에 수행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서 외래 서비스 이용자의 9.8%가 최근 방문 의료기관이 한방병의원이라고 답하였고,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은 입원 전 평균 1.2개소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병원, 의원 입원자의 평균인 1.1개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²⁾ 이 외에도 고령화 패널자료, 의료패널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전국에 한방병원은 282개, 한의원은 13,868개로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주로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 의료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진료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질환에 대하여 특히 그러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의학 발전에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현황, 이용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하여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한의 의료서비스가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한방 의료에 대한 인식 정도, 수요, 이용행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한의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된 국가승인통계 자료이다.⁴⁾ 그 중 외래환자 자료는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개인 중 한방 의

래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1,010명에 대하여 전문조사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출구면접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2018년 12월에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어 한방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이용환자의 이용실태 및 특성을 비교한 연구,⁶⁾ 한방의료기관 환자의 부작용 및 독성발생 특성에 대한 연구⁷⁾ 등이 발표되었다.

여러 자료원을 활용하여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는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한 증상으로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을 통하여 한의 의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여부나 양방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론하여 볼 수 있고 향후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 의료서비스 외래이용자 중 동일 증상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과 인구학적 요인, 치료 받은 질환 및 증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참여한 외래환자 1,010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는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개인 중 한방 외래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것이다.⁶⁾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 1,01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이용한 의료기관 종류,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여부, 총 가구소득, 한방외래진료를 이용한 주된 질환/증상, 동일증상으로 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받았다. (KHSIRB-19-381(EA)).

2. 연구방법

동일한 증상으로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험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대, 혼인 상태, 교육수준, 고용 상태, 가구 소득, 의료기관 종류, 거주지역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기술분석하여 절대 빈도와 상대빈도(%)를 제시하고 카이제곱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증상에 대하여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다빈도 질환을 조사하고, 10명 이상이 한의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질환에 대하여 다른 기관 이용 경험 비율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R (Version 3.6.1; R Development Core Team, Vienna, Austria, <http://www.R-project.org>)을 이용하였다.

//www.R-project.org)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동일 증상에 대하여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기관 종류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른 기관을 이용한 군이 539명, 한의 외래서비스만 이용한 군이 471명 이었다. 한의 외래서비스 단독 이용 군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가 39%로 다른 기관 이용군의 31.3%에 비해 많았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 사람이 39.3%로 다른 기관 이용군의 30.3%에 비해 높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단독 이용군이 59.0%로 다른 기관 이용군의 51.8%에 비해 높았다. 외래 환자의 성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p-value
	Yes (n=539)		No (n=471)		
	n	%	n	%	
Gender					0.738
Male	196	36.4%	177	37.6%	
Female	343	63.6%	294	62.4%	
Age group					0.036
≤39	82	15.2%	92	19.5%	
40-49	87	16.1%	92	19.5%	
50-59	135	25.0%	90	19.1%	
≥60	235	43.6%	197	41.8%	
Marital status					0.735
Single	46	8.5%	44	9.3%	
Married	493	91.5%	427	90.7%	
Education level					0.027
≤Elementary school	159	29.5%	122	25.9%	
Middle school	217	40.3%	164	34.8%	
High school	71	13.2%	78	16.6%	
≥ College	92	17.1%	107	22.7%	
Employment					0.024
Employed	279	51.8%	278	59.0%	
Unemployed	260	48.2%	193	41.0%	
Household income					0.207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p-value
	Yes (n=539)		No (n=471)		
	n	%	n	%	
< 1500 thousand Won/month	100	18.6%	63	13.4%	
1500-3000 thousand Won/month	162	30.1%	147	31.2%	
3000-4500 thousand Won	148	27.5%	132	28.0%	
4500-6000 thousand Won	80	14.8%	75	15.9%	
≥ 6000 thousand Won	49	9.1%	54	11.5%	
Institution					0.482
Hospital	163	30.2%	132	28.0%	
Clinic	376	69.8%	339	72.0%	
Region					0.176
Metropolitan area	226	41.9%	225	47.8%	
Chungcheong-do	69	12.8%	45	9.6%	
Gyeongsang-do	124	23.0%	97	20.6%	
Jeolla-do	120	22.3%	104	22.1%	

별은 여성이 63.1% 이었고, 91.1%가 기혼자였으며, 한의원 이용자는 70.8%, 한방병원 이용자는 29.2% 였고, 수도권에 이용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변수들에서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한의 외래서비스 단독 이용군의 다빈도 질환/증상

한의 외래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한 사람의 주된 질환/증상 중 10건 이상인 질환/증상에 대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척추(허리) 증상으로 치료 받은 사람이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및 관절병, 어깨병변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이용군의 다빈도 증상은 모두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있는 군의 다빈도 증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3.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있는 군의 다빈도 질환/증상

동일 증상으로 다른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군의 주된 질환/증상 중 10건 이상인 질환/증상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척추(허리)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및 관절병이 두 번째, 어깨병변이 세 번째로 많았다. 단독 이용군의 다빈도 증상에는 없었지만 다른 기

관 이용 경험군의 다빈도 증상에 포함된 것으로는 경추(목), 요추 및 골반 증상, 대퇴골과 아래다리의 골절 및 손상, 허혈성심질환, 수면장애가 있었다.

4. 다빈도 질환/증상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 분율

한방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10건 이상인 질환/증상에 대하여 다른 이용기관 이용 경험 분율을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요추 및 골반의 탈구, 염좌, 긴장, 골절 증상, 비염, 월경장애가 한의 외래서비스 단독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수면장애, 기침, 기분장애는 단독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IV. 고찰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다른 관점과 치료 기술을 가지고 질환을 치료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의, 서의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의학을 국가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질환별로 어떤 의학이 치료 효과가 더 좋은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의 치료가 더 효과적인 질병군을 중의우세병종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중의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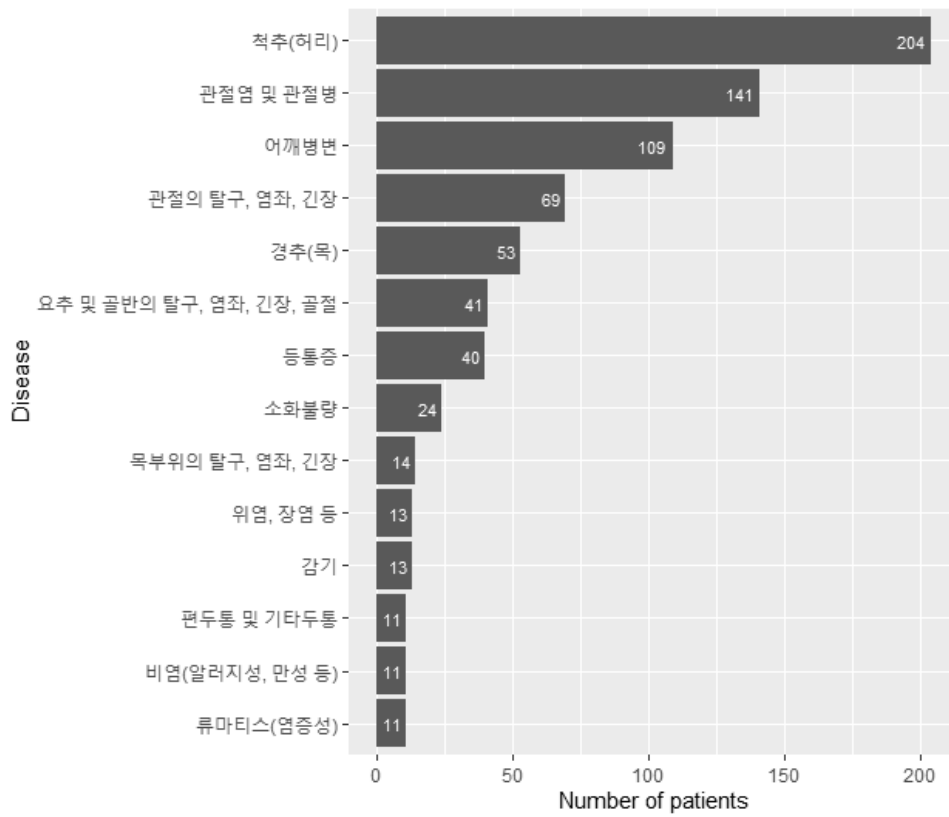


Figure 1. Frequent Diseases of Patients without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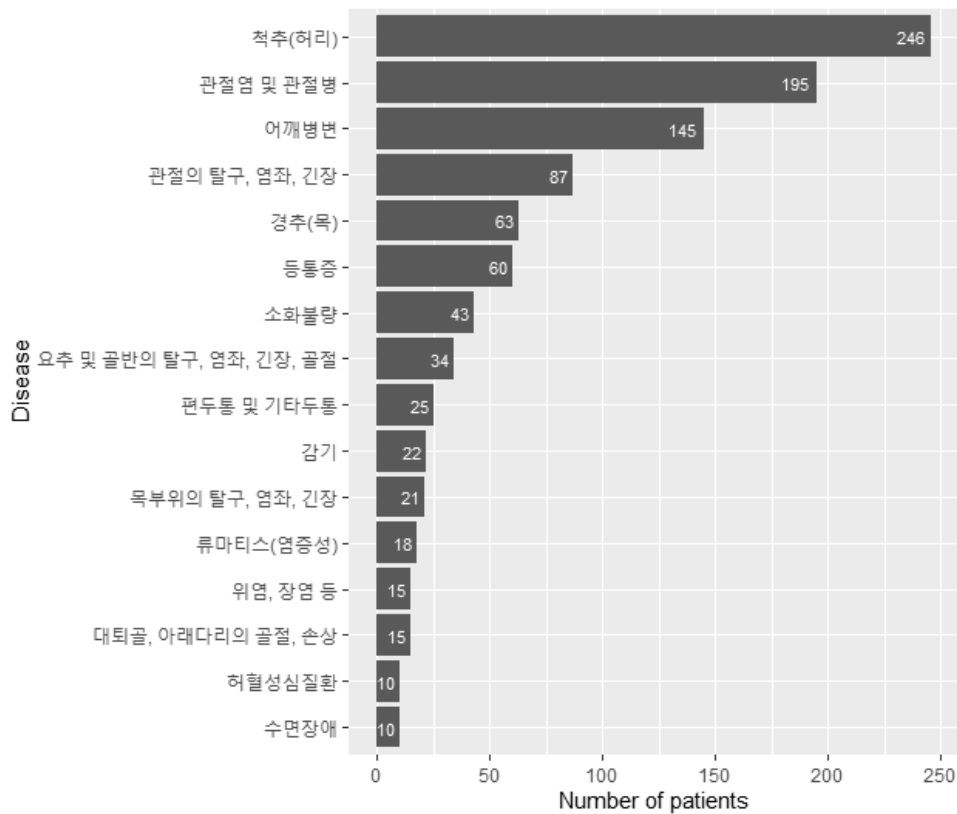


Figure 2. Frequent Diseases of Patients with Use Experience of Other Medical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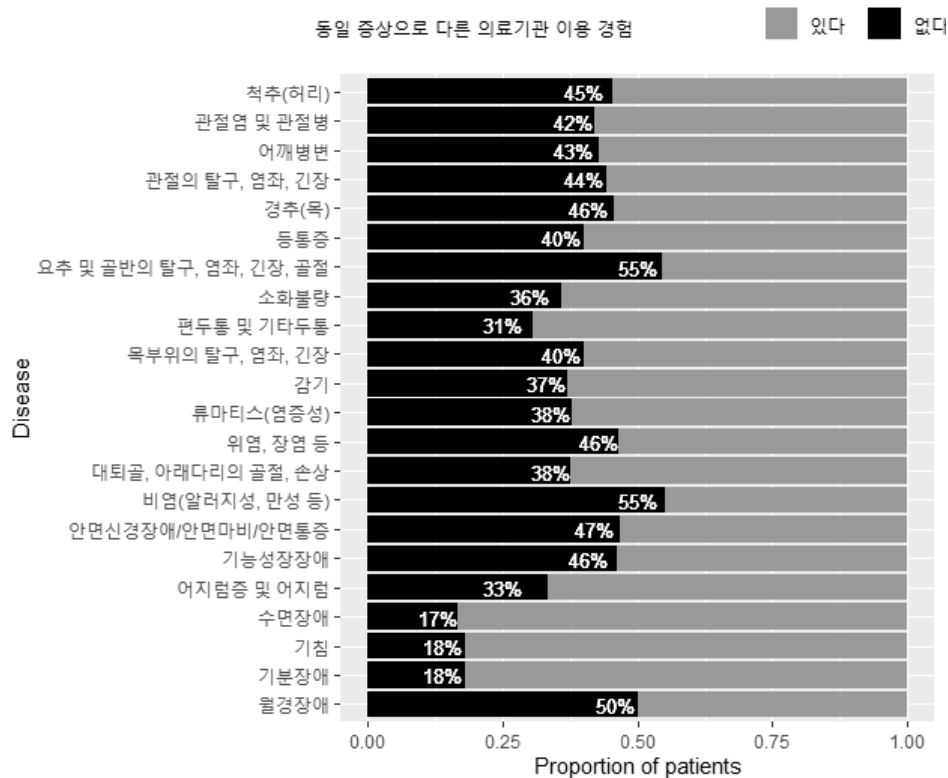


Figure 3. Proportion of Use Experience Other Medical Institution of Frequent Disease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⁸⁾ 한국의 의료 상황에서는 중의우세병종과 같이 한의 의료서비스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분류하는 데 아직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자료는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한의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동일한 증상으로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설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과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주된 질환 혹은 증상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 등을 분석하여 한의 외래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한의 외래서비스가 독자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한의 외래서비스가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한의 의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일 증상에 대하여 다른 의료 기관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인구학적 요인 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은 사람과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한의 의료서비스를 단독으로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2013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의료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한의 외래 이용 횟수를 보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⁹⁾ 또한 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한방의료이용 결정요인을 평가한 결과 양방이용군에 비해 한방이용군에 여성이 많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¹⁰⁾ 불건강 시 제일 먼저 방문하는 의료기관을 한방병의원으로 답한 사람이 고연령층에서 높고, 중소도시 거주자에서는 낮고 그 외 교육정도 등 다른 변수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연구와도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¹¹⁾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과, 특정 질환에 대하여 한의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간의 특성이 실제로 달라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한양방의료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향후 수행되고 공개될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자료와 다른 의료 이용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외래 방문 시 주된 질환/증상은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상위 빈도 질환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었고, 그 외에 소화기계 질환과 감기, 두통, 비염 등이 있었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현

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진단코드를 기준으로 한 이용건수가 근골격계질환이 45.1%, 소화기계질환이 18.2%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¹²⁾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한의 의료서비스가 선호되는 질환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한의학 특성의 결과이기보다는 국내 의료이용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침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적용과 이에 따른 한의사들의 주된 진료 형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의사 제도를 두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이 가능한 대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계 질환이 중의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질환이다.¹²⁾ 또한 중국에서 발표한 중의우세병종의 질환 수가 소화기계 통질환, 비노생식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순서로 많았다.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의학의 주요 진료영역의 확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 외래 서비스를 받는 다빈도 질환의 대부분은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 비율이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다 (다른 의료기관 이용경험 있다 53%, 경험 없다 47%). 다만 교통사고 등 외인으로 인한 요추 및 골반의 문제, 비염, 월경장애에서 한의 외래서비스만 단독으로 받은 비율이 50%를 넘었다. 수면장애, 기침, 기분장애는 단독으로 치료 받은 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의의료서비스가 몇몇 질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아직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이용 중 한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약 7%, 진료비 기준 약 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본 연구는 한의 외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한의 외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이용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은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의 향후 이용 의향 84.2%, 타인 추천 의향 61.7%, 한의 외래 이용자의 향후 이용 의향 96.4%, 타인 추천 의향 85.4%).¹⁴⁾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 국민의 인식 혹은 선호도라고 바로 추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73.8%가 한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적 있고, 선택이유, 이용목적 등은 이용자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를 일반 국민의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한의학의 독자 영역 구축 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¹⁴⁾ 향후 건강보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 혹은 전체 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파악하여 독자 영역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참여한 외래 이용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동일 증상/질환에 대하여 다른 기관 이용 경험 없이 한의 외래서비스를 단독으로 받았으며, 요추 및 골반의 탈구, 염좌, 긴장, 골절, 비염, 월경장애는 단독 이용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수면장애, 기침, 기분장애는 20% 미만이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HI18C2382).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기초 보고서 - 일반국민. 2018.
2. 보건복지부. 2018년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19.
3. 보건복지부.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2018.
4.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https://www.koms.or.kr/main.do>.
5.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지침서. 2018.
6. 이선동, 조재국, 김현도, 박해모, 양준모, 최성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외래이용환자의 이용실태 및 특성비교연구 -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중 이용환자의 질병치료방법 및 치료효과를 중심으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2):29-46.

7. 이기범, 박영철, 이선동. 한방의료기관이용환자의 부작용 및 독성발생의 특성 - 2011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회지. 2016;37(1):135-150.
8. 김경한, 김원영, 고유미, 기유종, 이선동. 중의우세 병종의 분류 및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5;19(2):113-121.
9.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지표 개발 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10. 박지은, 권순만. 한방의료 이용현황 및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 대한한의학회지. 2011;32(1):97-108.
11. 박성순, 남철현. 한국인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999;25(2):34-50.
12. Huang CW, Hwang IH, Lee YS, Hwang SJ, Ko SG, Chen FP, Jang BH. Utilization patterns of traditional medicine in Taiwan and South Korea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in 2011. PLOS ONE. 2018;13(12):e0208569.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2018.
14. 보건복지부.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기초 보고서 - 이용자. 2018.